

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 상담소의 독자성 확보, 상담원, 운영위원회, 시효와 처리절차, 징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상담소 운영 등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적용가능하게 하여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대학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반성폭력 학칙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때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대학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정왕미자 mijaurim@hanmail.net

다녀왔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문화제를 다녀와서

1908년 3월 8일은 미국의 1만 5천여명의 섬유여성 노동자들이 평등한 노동권과 선거권을 요구하며 역사적인 시위를 벌였던 날입니다. 최초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8일 이화여대 법대 강당에서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일정보다 한 시간 정도 지연되었지만, 기다린 만큼 재미있었고 독특한 문화제였습니다. "범람, 물결을 바꾸다!"란 타이틀로 3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대학생들만의 축제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열리고 트인 시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1부의 새내기 공연, 노래패 공연과 촌극, 자유 발언대는 여대생이 항상 노출되기 쉬운 성희롱, 교수 성폭력 등의 무거운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락밴드 '허클베리 핀'과 여성 래퍼 팀 '따따따', 노래패 '아줌마'와 명인 남,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님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Impossible Dream'이라는 외국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대사도 없는

짧은 작품이었고, 또 외국 작품이었지만, 한국 가정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침 식사부터 시달리기 시작하여 직장에서도 남자와 똑같이 일하고는 적은 돈을 받는 아줌마.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녀의 남편이 꿈꾸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예쁘게 꾸민 부인이었지만, 그녀의 꿈은 설거지를 도와주고 빨래를 개어주는 자상한 남편,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약간은 씁쓸한 맨 뒤 멘트인 "Is it impossible?"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쩌면 여성의 날도, 이렇게 자신들의 인권과 삶을 찾기 위한 작은 바람이 거센 물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비단 여성들 뿐만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억압이 되고 있는 가부장제와 성폭력, 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차별들에 당당히 맞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원하는 소망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문화의 '범람'이 되지 않을까요? 성에 관련된 차별과 억압이 없는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Is it impossible?"

지원 jwonhop@freechal.com

달해

성평등위원회

달해 10호 (특대호) 우발행: 한의대학생회신하 성평등특별위원회 | 발행인: 정왕미자 | 편집장: 김희효정 | 커뮤니케이션: www.freechal.com/medigender

C.O.N.T.E.N.T.S

01 새 집행부 인사 & 만든 사람들 & 광고

05 칼럼
존재감 없는 사람들...

08 박대박
한방다이어트

10 병주의 위어가는 코너
십자말 풀이

12 특집기사
성폭력 실천단? 성폭력 근절실천단!
'성폭력 사건의 학내 여론화'
& '반성폭력 학칙의 개정'을 위해..

시리즈 02

교육, 그리고 성평등

릴레이 인터뷰 06

김남일 교수님과 인터뷰

무심유심 09

주일이야 청소 아줌마를 만났을 때

엽물 상담실 11

성폭력 당한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다녀왔습니다!! 14

3·8 여성의 날 기념
기념 문화제를 다녀와서..

C.O.N.T.E.N.T.S

서문: 여성과 날개

연남이세요? 달해 새 집행부 인사드립니다. 달해는 올 연여도 연여게 내외 성평등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묘로 '그녀의 날'을 주제로 '전로(조고, 보은장, 연전 등)에서 성폭력'에 관해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든 사람들

초고	효정, 은희, 미자, 순임, 수경, 지원, 병주, 해진, 병진, 주일
수정	효정, 은희, 미자, 순임, 수경, 지원, 병주, 해진, 병진, 주일, 용주, 유정, 승규, 재현, 심연, 정수, 영빈
편집	유정, 승규

광고

*4월 3일날 6시반 중합강의동 B117에서 대학내 성폭력 뿌리뽑기에 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대주 목요일 1층 달해방에서 새내기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와주세요~^^

*4월 4일부터 4월 12까지 동승 아트센터와 하퍼텍 나다에서 여성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리프

교육, 그리고 성평등

성평등 논의의 처음과 끝, 교육

"교육제도의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필요 등이 생김으로써 각 사회 나름대로의 고유문화와 융합되고 새로운 교육 이상이 설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이진분/ 또하나의 문화

성평등 특별위원회는 2000년, 2001년 달해 신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남녀 차별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과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차별적 인식과 제도의 개혁'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교육'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평등 특별위원회는 올 2002년 한해 동안 신문지면을 통해 '성평등 교육'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삼고자 한다.

교육의 성평등, 성평등의 교육은 대학에서부터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육·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108조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성차별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교육 이념, 교육과정, 학교 및 교실 환경 또는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대학교육에서의 성평등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로 진출하기 바로 전 단계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대학내에서의 '교육의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또 대학은 성평등 교육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구분		문제인식
교육환경	교수	여자교수 부족, 전통적인 성역할 교수, 성차별적 수업내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안일하고 권위적인 대응·태도
	학생	여학생 소외시키는 학습분위기 조성,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교육내용	수업내용	기본 소양교육시간의 부재, 기존 수업내용의 '반쪽짜리 지식화', 성폭력·모성보호에 대한 전공수업 미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내용
	텍스트	문화적, 역사적 상황 무시한 책읽기, 수업교재 내용의 무검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학이란 공간은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험되어 질 수 있는 곳이므로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올해는 논의의 범위를 '대학'으로 한정시켜 대학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려 한다.

하나. 대학은 잘못된 성 인식의 산실?! there is wrong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고시한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

-여성교육개론/ 김재인의 공저/ 교육과학사 참조

우선은 지금의 대학교육이 다분히 성차별적인 면모를 띠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학교육 환경은 성차별적 인식(각종 편견, 고정관념, 무관심 등)이 태어나고, 자라고, 대물림되는 '성차별 교육의 산실'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 안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또한 지나치게 한쪽 성에만 편중되어 있다.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경직된 성별분업구도, 교수님들의 여성 비하적인 태도, 무지에서 오는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 한쪽 성이 소외되는 수업분위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이제까지 대학을 '성차별 교육'의 본거지로 만드는 자양분의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대학교육이 교수와 학생간의 긴밀한 신뢰관계, 학우들간의 친밀한 교류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목이 역으로 성차별적인 인식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 머릿속과 생활 속에 파고들게 하는 논리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한의대의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한의대 내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여론화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영국의 성평등 개입 프로그램

GIST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과목에 있어서의 남학생 편중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성취도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에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GIST 프로그램은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의 종합 중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4년간 이루어진 장기간의 프로젝트였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원인은 부분적으로 학교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여학생의 과학과 기술교과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여 보다 많은 여학생을 이 분야의 직업에 진출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GIST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가지 개입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으며, 모두 여학생들의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내용들이다. 특히 이들 과목들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학교, 교과과정 내용, 교사들의 태도변화 등에 역점을 둔다. 또 남녀 공동학급 운영상의 문제점, 교재 내의 남성 반영요소, 남성교사와 남학생들의 행동양식, 과학 실험시간 등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포함된다.

둘. 성평등적 교육, 성평등 교육의 부재

there is nothing

문제를 지적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제시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용의주도한 유형보다는 '잘 몰라서', '별 생각 없이', '좋은 의도에서'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수이건 학생이건 간에 지금껏 성평등적 대학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뿐더러 성평등에 관련된 전문 소양교육은 아예 접해보지도 못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평등 교육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

을 대학의 '성평등 교육 부재'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성평등적인 마음가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갖추어야 할 자질일 뿐더러 앞으로 의학적인 권위를 지니게 될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한의대 학우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소양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성불평등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성불평등의 순환고리 끊기

단순한 교육기회의 양적 평등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받는 교육 내용과 성과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특정 성(性)에 국한된 권리 주장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실

제로 남녀 평등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실 수업의 효과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교육 환경이 성평등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 속에 뿌리 박힌 성불평등적 상황과 인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 내 성평등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그 자체로 당위성을 가진다.

-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발언 근절
-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텍스트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논의
-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

앞으로 대학 내 성평등 교육에 관한 논의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경희대학교 학원자주화 운동과 한의대 교육과정 심의위원

회의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의 단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1. 수업시간에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발언이 근절될 수 있도록
1.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1. 텍스트에 대한 활발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1. 올바른 비판적인 성 인식 배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해 가도록 할 것이다.

김희영 godori78@freechal.com

칼럼

존재감 없는 사람들...

새 학기가 되어 새로운 맘으로 눈과 귀를 열어 열심히 수업을 듣다가 수업에 대한 열의와 내 자신의 존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일을 종종 경험한다.

"예쁜 여자를 진찰할 때는 청진기 줄이 짧을수록 좋겠지요?"

"감상선 질환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지요. D형이죠?"

수업을 듣고 있는 나는 갑자기 증발해버리거나 나의 정체성은 갑자기 남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물론 위의 말을 한 주체는 남자교수님이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도 남학생이긴 하지만 소수라도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여학생도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말들은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학생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의도확대의 오류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려고 하는 교수님의 농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이다.

열심히 귀기울이고 필기해가며 강의를 듣고 있지만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의 시야에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학생은 수업을 잘 듣고 나아가 올바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다른 경우에는 수업 중의 내용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몸을 빌려주는 거고, 여자는 머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만약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비까지 굵고 그러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자가 하루종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술먹고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좋고, 남자는 몸을 편하게 해

주면 좋겠지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과 특정한 일을 특정한 성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앞으로 한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도 대부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처럼 하루종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맘 졸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위의 예시는 고전적인 여성의 역할과 현대여성의 역할의 차이를 무시한 사례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공부할 의욕이 부족부족 솟아나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 오히려 수업에의 집중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지 않을까? 이런 의욕감소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그 학기 내내 지속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수업도 일종의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강의가 이루어지는데는 교수님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열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갖는 신뢰감이나 존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교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존경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학생과 교수와의 교감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단순히 개인의 성향('원래 수업시간에 산만하거나, 수업에 별 관심없거나, 졸거나...')만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집중도를 높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 학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언행,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 발언 등은 삼가야 할 것이다.

산도sando98@freechal.com

김남일교수님과의 인터뷰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교육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주제에 따라 새로 학과장으로 임명되신 김남일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적 교육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최근에 경희대에서 모 교수님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났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권력관계가 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과 교수가 만날 때 교수가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더욱 그렇지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여자, 남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개념을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성폭력의 의미와 정의가 공유됨으로써 그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에 성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가해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들은 자신이 성폭력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면서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끔씩은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성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다분히 남성 과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자들은 변화를 많이 했지만 남자는 많이 변화하지 못했어요. 남녀간 괴리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의 정의와 처벌에 대한 교

육이 특히 남자 대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성폭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남자들이 옛날에는 성기삽입을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몸을 더듬거나 음란한 사진도 성폭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지요. 이렇게 발전된 것도 대단하지요. 바로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시선이나 농담 등도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야지요. 달해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책자 등을 펴내 알려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 교육, 혹은 성폭력 환자 대처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책자를 만든다든지,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대학교육에 넣기는 당장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강의 평가서에 '강의 중에 성차별적/ 성폭력적 내용은 없었는가?' 등의 질문을 넣을 수 있다는 학생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 가끔씩 수업 시간에 수업분위기를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농담(성차별적이라 생각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구요.)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대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도 교수와 학생간의 세대 차이이고, 또 여학생도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하지만, 교수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교수 세대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어요.

서서히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몽박엔 길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변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다음으로 한의학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 한의학에서는요 남/녀의 성차에 따라 남/녀를 다르게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는 양이니 바깥일을 해야한다는 등의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모두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적 요소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현재 사회에서 억눌려 있다', 자연적 요소로는 '여자는 음적 존재, 혈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가 남는다', 따라서 남는 기를 소모시켜 주어야하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남자는 쉬고, 여자는 활동해야 병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단 이야기입니다.

■ '양기를 보하는 약과 배란기, 온도 측정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더라'는 말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봉하지 않습니다. 김일락 박사라고 동의대학교 방제학 교실에 있는 그 분이 말씀하시길, '전여위남법은 그 자체의 신빙성보다 문화적 해결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의사가 해결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성 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된 사회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한의학자들이 여자는 얼굴이 희고 덩치가 작아야 좋고, 남자는 체격이 있고 머리가크고 어깨가 넓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보감에 비슷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어떻게, 남자는 이렇게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분히 의사의 주관적인 면이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생김으로 오는 병이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과 골격이 크고 활동적인 여성이 집안에만 있다보면 氣鬱이 될 수 있지만 여자 중에서도 연약하고 얼굴이 흰 여자들의 경우에는 血虛와 寒症 같은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봐야하는 것입니다.

■ 부가질문인데요.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하실 의향은?

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는 불편하니까 안 하지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호적도 그렇게 가는 추세라면 나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느니까 좋은거 아닐까요?

■ 마지막으로 달해에게 해주실 격려와 해주실 말씀은?

달해 같은 모임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씨름입니다. 의식은 바꾸기가 어렵거든. 개인적인 모범을 보이는 학생으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꾸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속 편견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지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니 나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곳곳히 투쟁해 나가길!

참석자 : 98순임, 99미자, 00은희, 이지연, 028정

정리자 : 00김예은의 sanpi@freechal.com

박대박

한방 다이어트

요즘 한방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뛰어난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다이어트 시술을 하는 한의사들은 다이어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은 한방 다이어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모 한의사 두 분의 가상 대화입니다. 두 분의 저서를 바탕으로 만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 비만은 게으름과 변명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많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지만, 먹는 본능에 저 살이나 찌서 병치레나 하면서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B: 요즘 사회는 몸에 대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건, 짧은 옷을 입건, 벗고 다니던 내 생활에 간섭받기 싫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살이 찌서가 아니라 살이 찌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무얼 먹고 어떤걸 입던 그건 개인의 취향이죠. 하지만 뚱뚱한 사람이 짧은 옷을 입고 다녀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뚱뚱한가는 곧 자신이 얼마만큼 게으르고 나태한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B: 이런 인식 때문에 뚱뚱한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억지로 살을 빼려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살을 빼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더 많이 먹게 된다면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된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A: 살이 빠져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도 좋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멋진 몸매를 갖게 된다면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자신감도 회복하고 건강도 좋아진다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제로 모델처럼 날씬한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 보다 건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살을 빼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B: 제 친구는 살을 빼기 위해 하루에 두시간씩 뛰는 고행을 하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져 머리를 심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날씬하고 예쁜 친구였는데도 억지로 살을 빼려고 했기 때문이죠. 고도비만인 경우 물론 살을 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살을 빼려고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A: 물론 날씬한 여성들이 살을 빼겠다고 할 때는 약간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몸매보다 약간 살이 찘다면 당연히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일종의 자기 만족이랄까?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 아닌

가요?

B: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몸은 있는 그대로 자연이죠. 부속을 갈고 늘리고 줄여야 할 공산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인형같은 모델들을 쫓아가느라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것 자체이죠. 통통한 얼굴의 최은희나 마릴린 먼로 같은 옛날 배우들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TV 화면에 등장은 커녕 살 빼느라 한 많은 청춘을 보냈을 것입니다. 미의 기준이 바비 인형이 되버린 현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당한 양 제시되고 있는 size는 큰 키에 비해 뽀뽀 말라기 운없고 불쌍해보이는 기형적 몸매에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틀린 답에 몸매를 맞추느

라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날씬하고 예쁜 여성들이 살을 빼겠다고 오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깨워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요?

【한 번 읽어봅시다~】

★살에게 말을 걸어봐, 이유명호, 이프, 2001

★김소형 원장의 건강 다이어트, 김소형, 느낌 이 있는 나무, 2001

★죽어도 안 빠지는 살 한방으로 뺌다, 김길수, 동아일보사, 1998

메일 witch161@freechal.com

메일 bottlejean@freechal.com

無心有心

주일이가 청소 아줌마를 만났을 때

남학생들은 소변을 보다가 청소 아줌마가 불쑥 들어와서 청소하는 일을 가끔씩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처음 당했을 때 나는 속으로 "시바! 어떻게 해야지?", "청소 아줌마도 너무 하시네.. 좀 기다리시지.."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모두 "일이 급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라고 했다.

그러나 아줌마가 옆에 계시는데도 소변을 계속 본다는 것은 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아줌마는 청소를 하셔야 하고, 학생들은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아줌마를 여자로 보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청소 아줌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들어 왔으면 나와 친구들은 곧바로 일을 멈췄을 것이다. 즉, 그 때까지는 아줌마가 청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자상한(?) 학생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아줌마를 여자로 보지 않는 - 즉, 아줌마를 무시하는 나쁜 놈(?)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아줌마를 여자로 봐야 한다. 그러나 들어오실 때마다 일을 멈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소 시간이 되면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신 다음, 안쪽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사람들이 다 나온 후에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아줌마를 여자로 안 보고 그냥 일을 보는 것이 성폭력인가'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정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性的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인데.. 물론, 청소를 하시면서 일을 계속 보는 남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만약 아셨다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자신을 여

특집기사

성폭력 실천단?

성폭력 근절 학자단!

'성폭력 사건의 학내 여론화' & '반성폭력 학칙의 개정'을 위해...

학원자주화 투쟁 승리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자실천단 '피도 눈물도 없이' 활동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한가? 분홍색 학자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경희대에서도 성폭력이!

경희대 대학원 내 성폭력 사건이 작년 말 총여로 접수되었다. 또한 작년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으나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는 등 학칙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듯 성폭력 사건을 학내 여론화하고, 유명무실한 반성폭력 학칙을 유명유실하게 개정하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원자주화 투쟁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질문 1: 학원자주화랑 성폭력이 어떻게 연결되나?

☞ 학원자주화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것!

학자투쟁이라고 하면 등록금 투쟁이 많이 활성화되어서인지 학자(학원자주화)투쟁이 '학자금투쟁'인 줄 아는 새내기도 있더라고 했다. 등록금이 자율화된 후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해마다 올라서 등록금 투쟁이 학원 자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의무)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학 내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구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2절 성폭력 특별위원회

제 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 4장 교육 및 예방 조치

부칙

☞ 대학본관은 1장 4조 의무 조항을 잊었는가?

은 없지 않으나, 학원 자주화 운동은 결국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운동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요구, 즉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 복지시설을 늘리는 것, 성폭력을 없애는 것, 환경오염 원인을 줄이는 것들이 모두 학원 자주화라는 큰 흐름 안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 (한의대 요구안 및 경희대 100대 요구안이나, 그 성과로 이뤄진 한발 위, 교심위도 넓게 보아 이 흐름 안에 있다.)

학내 성폭력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 작년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음에도 상담소 직원 관리 등 실질적인 재정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학교의 노력은 겉치레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어쨌든 넘어 가기 전에 학생들이 요구해야 한다.

질문 2: 이것도 과연 성폭력일까?

☞ 성폭력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

2001년 4월초~12월 11일까지 경희대 **대학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다. 다음은 12월 15일 피해자가 가해자 교수님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6월...교수님은 문을 닫고 본인의 옆 소파에...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수업엔 안 들어가도 괜찮다"...본인이 앉아있는 소파 등받이 쪽으로 손을 올리셨고..

7월 "너무 잘 만들었다. 글을 그렇게 잘 써서 왜 그렇게 사람 가슴이 떨리게 하느냐"...

10월 저녁 8시 경 전화.."언제 편집장이 됐느냐, 혼자 일을 잘 하는 뜨거운 여자다"..

12월 종강파티에서 교수님은 옆에 앉아 계시던 **학우에게 "**(본인의 이름)와 자리를 바꾸라"고....."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느냐"고...본인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 번 툭툭 치..건들지 마시라 하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학내 성폭력은 주로 교수-학생 등 교직원-학생 간이나 선배-후배 등 학생 내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가 쉽다. 이 때 성폭력은 성기삽입(강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해석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수업시간에 한쪽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동아리나 기타 학생들 간의 모임(술자리, 게임, 놀이 등..)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반성폭력 학칙 1장 3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 공포감을 느꼈으므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사건 비대위 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고 있는데, 현재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말로는 '사과하겠다'고 하면서도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피해자라 지칭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및 예방에 실효를 거두는 학칙을 위해

올해 3월달부터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학칙으로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과 다른 점을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학칙의 개정에서 논의

2 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구,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6조 (설치)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 (구성)①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 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며 상담실에는 성폭력 상담위원을 둔다.

제8조(상담위원의 자격) 상담위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며 그 상담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조절된 것일까? 현재 상담위원은 0명